

“양현종의 것을 해라” ML 선배 윌리엄스 감독의 조언

‘언어·인간 관계·보직’ 외부의 컨트롤 할 수 없는 것들 비워야
고영창 등 KIA 후배들 “똥똥 뭉쳐 공백 메우겠다” 의지 다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양현종의 것을 해라!’
미국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한 양현종이 지난 20일 도전의 무대로 떠났다.



만족스럽지 못했던 지난 시즌, 코로나19, 마이너리그 계약 등 ‘빅리거’를 꿈꾸는 양현종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려 속에서도 양현종은 7년 연속 170이닝 이상을 소화한 이력과 ‘좌완’이라는 이점을 앞세워 마운드 고민에 빠져있는 텍사스에서 빅리거 진입을 노리게 된다.

야구 인생 마지막 빅리거 도전을 위해 떠난 양현종을 위해 윌리엄스 감독과 동료들은 아낌없는 응원과 박수를 보내고 있다.
KIA는 양현종이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 챔피언스필드 전광판에 양현종이 포효하는 사진과 함께 ‘양현종 선수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라는 응원 문구를 띄웠다.
동료들은 출발 전 영상 통화로 작별인사를 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양현종답게’를 주문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그 전에 훈련하러 왔을 때

언어적인 부분도 어려움이 있고, 보직도 찾아야 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냥 내가 내 것을 한다고 생각하고 해야 한다. 어차피 다른 바깥 요인들은 컨트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것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휩쓸리기보다는 자신의 리더로 마지막까지 경쟁을 주문한 윌리엄스 감독.

이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운동하는 것도 쉬는 날 스케줄도 달라서 다 적응해야 하는 부분이다. 미국 캠프는 6주간 이를 정도 쉬는 일정이 있는 등 빠르게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선배의 빈 자리를 채감하는 후배들은 팀워크로 양현종의 공백을 채우겠다는 각오다.
투수 최고책임 고영창은 “아직 시즌 시작 안 해서 부담감이나 그런 것은 없지만 (박)준표, (이)준영, (이)민우랑 이야기하면 현종이 형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그 자리를 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더 똥똥 뭉쳐서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21일 미국 현지에서 도착한 양현종은 MLB 사무국의 방역 지침에 맞춰 텍사스 구단의 지정 호텔에서 최대 5일간 격리한 뒤 애리조나에서 진행되는 스프링캠프에 합류해 경쟁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양현종 “반드시 빅리거서 공 던질 것”

텍사스 스프링캠프 초청선수로 출공... “팬 걱정 안시키겠다”

미국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한 왼손 투수 양현종(33)이 빅리거의 꿈을 안고 20일 장도에 올랐다.

양현종은 인천공항에서 떠나기 전에 한 인터뷰에서 소박하면서도 담대한 목표로 “빅리거에서 공을 던지는 것”을 제시했다.

자신이 태어난 해인 ‘1988’이 적힌 셔츠를 입고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 양현종은 “한국에서처럼 많은 이닝을 던져 팀에서 인정받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의욕을 보였다.

그는 “개인적으로 동계훈련 때 혼자 몸을 만든 건 처음이다. 주변에서 많은 분이 도와줬고, 특히 KIA 타이거즈 구단이 많이 배려해주셨다. 불펜에서 공을 50개 정도 던질 정도로 페이스를 끌어올렸고, 광주와 서울을 오가며 캐치볼도 꾸준히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초청 선수 신분으로 메이저리그 스프링캠프에 참여하는 만큼 보직을 얘기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새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고, 선발이 아닌 빅리거 승격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다. 큰 무대에서 공을 던지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양현종은 이어 “쉽지 않은 도전으로 이제 비행기를 탄다. 팬들이 응원하기보다는 걱정하신다는 점도 잘 안다. 다만, 내가 선택한 만큼 후회하지 않는, 좋은 선택이었다는 점을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겨울↔봄 ‘극과 극’ 챔필 ... 날씨 변동에도 준비는 ‘착착’



외야에 쌓인 눈 때문에 20일 합평 챔피언스필드에서 훈련을 했던 KIA 1군 선수단이 봄 날씨가 펼쳐진 21일에는 광주 챔피언스필드에서 야외 훈련을 소화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합평 오가며 실전 준비...실내에 불펜 꾸려 눈보라에도 피칭
기온 오른 주말 그라운드에서 기술훈련...다음달 초 흥백전 진행

‘극과 극’의 날씨를 경험한 KIA 타이거즈가 실전 준비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8일 “알래스카에 온 걸 환영한다”고 농담했던 윌리엄스 감독이 21일에는 “4월의 날씨다”며 활짝 웃었다.

지난 주 광주에는 많은 눈이 내렸고, 챔피언스필드도 눈발이 됐다.

다행히 국내 캠프에 맞춰 불펜을 실내 공간으로 꾸려놓은 덕에 KIA는 불펜에서 투수들의 피칭과 야수들의 수비 훈련을 무리 없이 소화했다.

하지만 외야에 쌓인 눈 때문에 실외 훈련에 제약이 있었던 만큼 고민 끝에 윌리엄스 감독은 선수단을 이끌고 20일 인조잔디 구장이 있는 합평 챔피언스 필드로 향했다.

직원들이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했고 다행히 날씨도 좋아서 합평 훈련은 기대 이상으로 잘 진행됐다.
눈 때문에 훈련 고민을 했던 KIA는 며칠 만에 놀라운 봄을 맞았다.

윌리엄스 감독은 21일 훈련에 앞서 “(전날)합평 훈련이 좋았다. 굉장히 좋은 컨디션으로 준비가 잘

되어있었다. 날씨도 좋았다. 어제와 오늘은 봄날씨다”고 말했다.

21일에는 기온이 20도를 웃돌아 그라운드에 활기가 돌았다.

좌우 외야에서 나눠 몸을 푼 투수조들과 야수조들이 함께 수비 훈련을 하면서 경기장을 함성으로 채웠다. 그라운드를 뛰어다니면서 실전처럼 공을 잡는 야수들은 배팅 케이지에서 서서 외야로 공을 보내며 기술 훈련을 소화했다.

불펜피칭을 쉬어간 투수들은 외야와 경기장 3층 콘코스를 뛰면서 땀을 흘렸다.

날씨가 잠시 변덕을 부렸지만 26일 라이브 피칭에 맞춰 KIA는 실외에서 페이스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 실전이 다가오면서 합평도 덩달아 바빠질 전망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라이브에 들어가게 되면 합평 시설을 더 이용하면서 훈련을 진행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합평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은 흥백전을 통해서 어떤 무대도 가질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윌리엄스 감독은 “3월 7일쯤 흥백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9일과 10일에도 흥백전을 예정하고 있는데, 9이닝을 다 소화하기 힘들니까 선수들을 나눠서 할 생각이다”며 합평 자원들의 실전 점검을 예고했다.

흥백전까지는 “미러링”을 통해 광주와 합평이 함께 호흡을 맞추며 실전 페이스를 만들 예정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1군 프로그램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합평에 주문하고 있다. 합평 코치진이 육성에 더 중점을 두고 있지만 시즌에 들어가게 되면 1군에서 누군가 필요할 때 바로 선수가 준비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며 “누가 갑자기 탈이 나는 경우 등을 대비해야 한다. 올해는 부상자 명단 등재 시스템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 쓰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대비해서 겨울처럼 유사하게 합평과 광주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투수들도 겨울처럼 로테이션을 맞춰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전 모드 전환에 앞서 선수단 스케줄도 조정했다.

22일 휴식일을 보내는 선수들은 원래 예정됐던 27일이 아니라 하루 미뤄 28일 다음 휴식일을 맞는다. 다시 5일 훈련 뒤 6일 휴식일이 예정됐다. 그리고 7일 흥백전을 시작으로 9·10일 한화와의 연습경기 등 본격적인 실전에 나설 예정이다.

날아오른 이강인

발렌시아-셀타 비고전 4개월만에 공격포인트...팀 2-0 승리 전인

모처럼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라리가) 경기에서 선발로 기회를 얻은 이강인(20)이 시즌 4호 도움을 올리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이강인은 21일(한국시간) 스페인 발렌시아 메스타야에서 열린 셀타 비고와의 2020-2021 라리가 24라운드 홈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 마누 바예호의 결승 골 때 도움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엘체와의 7라운드 이후 라리가에서 약 4개월 만에 나온 이강인의 공격포인트다.

시즌 전체 대회를 통틀어서는 지난달 8일 3부 리그 팀 레알라노와의 코파 델 레이(국왕컵) 2라운드 선제골 이후 한 달여 만에 공격 포인트가 추가됐다.

이강인의 시즌 전체 공격 포인트는 1골(코파 델 레이) 4도움(라리가)으로 늘었다.

이강인은 지난달 28일 세비야와의 코파 델 레이 16강전에 풀타임을 소화하기도 했으나 리그에선 지난달 22일 오사수나와의 19라운드 이후 약

한 달 만에 선발로 나선 가운데 팀의 2-0 승리에 앞장섰다.

후반 추가 시간에만 이강인이 발판을 놓은 바예호의 결승 골에 케빈 가메이로가 한 골을 더 보탠 발렌시아는 셀타 비고를 제압, 리그 2경기 무승(1무 1패)을 끊고 12위(승점 27)로 올라섰다. 4-4-2 전형에서 막시 고메스와 최전방에 배치된 이강인은 정확한 패스로 활로를 열었다.

후반 19분 상대 골키퍼 루벤 블랑코의 퇴장이 나온 데에도 이강인의 패스가 뒷받침됐다.

이강인이 센터 서클 부근에서 보낸 예리한 스루패스로 고메스가 절호의 득점 기회를 맞이하자 블랑코가 페널티 아크에서 미끄러지며 막으려다 고메스를 넘어뜨렸고, 이것이 레드카드로 이어졌다. 이후 이강인의 왼발 프리킥은 결승 골로 연결되지 못했으나 90분이 지나도록 이어진 0의 균형을 깨뜨린 장면에서도 그의 감각적인 패스가 빛났다.

/연합뉴스